

노사발전재단, 4본부 11팀체제로 조직개편 단행

조직슬림화로 재단 정체성 강화... 사업 쇄신 나선다

노사발전재단이 사업간 융합 및 재단 정체성 강화를 위해 기존 1실 3본부 1센터 12팀 체제를 4본부 11팀 체제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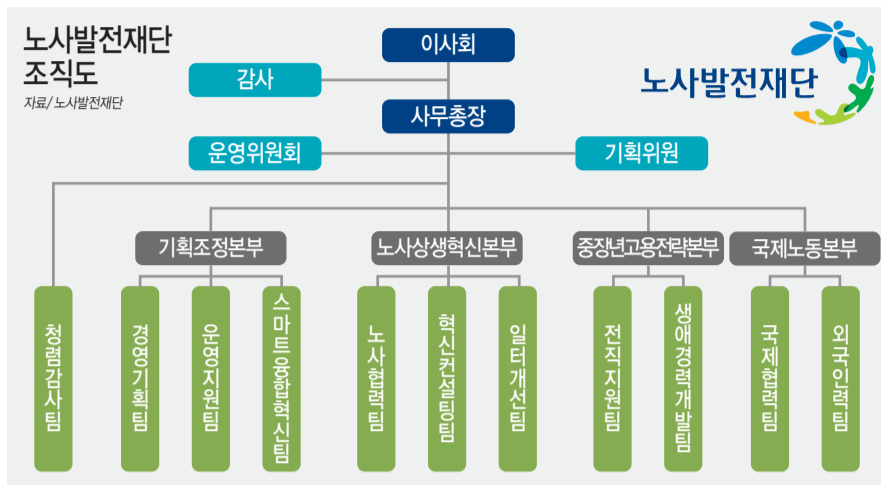
8일 재단에 따르면 핵심사업인 일터 혁신 컨설팅과 노사상생협력 사업을 연계·운영하기 위한 노사상생혁신본부를 신설했으며 재단 사업간 융합을 통해 스마트일터혁신 프로세스를 통한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융합혁신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재단은 다양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업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해 재단의 설립취지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수요자인 현장의 노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성과 창출 및 업무 프로세스 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내부 지

스마트융합혁신팀 등 2개팀 신설 효율적인 조직문화 실행에 방점 재단 내 사업간 연계·융합 강화

적도 제기돼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직제개편은 최근 스마트공장에 대한 현장의 관심에 부응해 스마트공장 컨설팅 중심으로 제조생산현장에서의 HR제도 정비와 인적자원역량 개발, 조직문화 실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 노사상생혁신본부와 기획조정본부 내 스마트융합혁신팀 신설을 통해 기존의 재단의 여러 사업들을 연계·융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 중장년일자리지원본부에서 명칭을 변경한 중장년고용전략본부는 전국 13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와 전직지원을 통한 중장년고용 전반을 재단의 모

든 사업들과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직자 및 구직자에게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통해 장년에 진입하는 일정시점에서 본인의 생애경력을 점검하고, 인생후반부에 대한 계획수립과

경력관리, 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전직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 취업, 창업 등 향후 진로를 계획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그동안 재단쇄신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청에 대해 구성원들의 오랜 고민과 반성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스마트일터혁신 지원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재단의 중장년지원, 노동분야국제교류협력 등 모든 사업을 새롭게 쇄신해 노사의 신뢰를 받는 고용노동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캠코 고문변호사와 ‘반부패·청렴문화’ 다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이어 5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와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2019년 고문변호사 위촉식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캠코가 향후 2년간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임할 고문변호사 76명을 위촉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소송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자발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고문변호사들과 함께 ‘청렴 서약식’을 개최함



캠코가 5일 캠코양재타워에서 개최한 '2019년 캠코 고문변호사 위촉식 및 청렴 서약식'에서 고문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서약을 하고 있다. /캠코

으로써 반부패·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김희주 기자 hj89@

“태국 관광객을 환영합니다”

관광공사 12일~19일 환대주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2~19일까지 8일간 태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2019 태국 환대주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태국인들의 방한 봄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환대주간 첫날인 12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 환영행사를 개최한다. 인천공항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이 참가하며, 김해공항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등이 참가해 방한 태국인들을 환영하고 태국 환대주간의 본격 개시를 알릴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기보-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中 小 혁신성장 ‘맞손’

기술보증기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특히 기보는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등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특구재단과 협력해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있는 5개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농식품 中 수출길 넓힌다... 대규모 판촉전

aT-농식품부

중국어 ‘상해 K-Food Fair’ 개최 인지도 높이고 10대품목 판매 촉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7년 사드사태로 주춤했던 대중농식품 수출 도약을 위한 개척활동에 나선다.

중국의 식품시장은 1조2932억달러 규모로 전 세계 시장(6조 6652억달러)의 19.4%를 차지하며 농식품 수입 시장은 2002년 103억불에서 2017년 1259억 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1가구 2차녀 정책의 전면 시행으로 영유아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O2O 매장이 등장하는 등 온라인·모바일 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달 14일까지 ‘2019 상해 K-Food Fair’를 상해 훙차오 힐튼 호텔 및 동방명주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4월 11일 주간에 집중 실시되며 한국 식품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상담회(B2B)와 소비자 체험 행사(B2C)가 결합된 통합 마케팅 행사로 진행되며 이번 중국 행사를 시작으로 프랑스(6월), 미국(7월), 태국(9월) 등 총 7개국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선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 높이고 대중 10대 전략품목의 수출 성장세를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다.

aT와 농식품부는 이번 K-Food Fai

r 외에도 우리 농식품의 현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판촉전을 실시하고 있다.

판촉전에는 ‘JUSCO’, ‘RT 마트’ 등 현지 대형 유통매장 및 ‘허마센싱’ 등 O2O 매장 약 211개소가 참여해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사드 이슈로 주춤했던 대중 농식품 수출은 작년 5월부터 회복돼 2018년 11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에도 초반 상승세가 이어져 2019년 3월 전년 대비 17.9% 성장한 2억4200만달러(잠정)을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농식품 수출의 성공 열쇠는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과 높은 품질을 중국 현지에서 잘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중기부 유관기관들, 강원 산불피해 힘 보탠다

기보 재난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공영쇼핑 긴급구호품 200세트 전달 중진공 현장대응반 꾸러 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관기관들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 돕기에 적극 나섰다.

8일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 공영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은 구호 물품 전달, 비상대책반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기술보증기금은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 파악과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기보는 보증담당이사를 비상대책반



장으로, 경기강원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해 기보 강릉지점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원주, 춘천지점에도 산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기보는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등 강원도 5개 시군지역에 있는 산불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난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나섰다. 시설 소요자금은 전체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임금, 원자재비 등 경영자금)은 5억 원 내에서 0.1%의 고정보증료를 적용과 함께 보증 비율 우대(90%), 연체와 체납 등의 심사기준 완화, 전결권 완화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공영쇼핑도 봉사단을 통해 긴급구호 물품이 담긴 ‘공영쇼핑 박스’ 200세트를 강원도 속초시청에 전달했다. ‘공영쇼핑 박스’는 ▲무릎담요 ▲양말 ▲운동화로 구성됐다.

중진공 역시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간 비상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장 피해상황 파악 및 피해현장 복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 부이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장긴급대응반’도 꾸렸다.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블런스맨도 투입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 파악과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현장에서 즉시 결정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